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 면접 독학서

인문학·사회과학 편

저자: SNU20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 합격)

본 자료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편집/복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적 목적의 단체 구매 환영합니다.

수시전형 상담, 교재 구매 문의 등 각종 질문은 오르비 아이디 'SNUCOF2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시문, 문제, 학교 측 해설의 원문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 책의 200% 활용법

저자 소개

서울대 면접의 핵심

2019학년도 인문학 오전

2019학년도 사회과학 오전

2019학년도 인문학 오후

2019학년도 사회과학 오후

2018학년도 인문학 오전

2018학년도 사회과학 오전

2018학년도 인문학 오후

2018학년도 사회과학 오후

2017학년도 인문학 오전

2017학년도 사회과학 오전

2017학년도 인문학 오후

2017학년도 사회과학 오후

이 책의 200% 활용법

* 2020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제외),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은 인문학/사회과학 제시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합니다(사범대학은 따로 인적성 면접도 실시).

간호대학의 경우 화학/생명과학, 인문학/사회과학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영대학 경영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는 사회과학/수학(인문) 제시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수학(인문)/수학(자연), 인문학/수학(인문), 사회과학/수학(인문)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면접 유형 선택은 수시 원서 접수 시에 이루어집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에는 영어 또는 한자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요강 또는 전형계획을 참조하십시오.

* 면접은 먼저 면접 준비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면접 순서는 랜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했다가 답변 준비를 위해 면접 준비실로 이동합니다. 인문학/사회과학 세트를 기준으로 답변 준비 시간은 30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면접실로 이동해 면접을 봅니다. 답변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집에서 이 책을 보면서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먼저 서울대학교 입학처의 기출문제 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보셔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정해진 준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9학년도 오전 인문학/사회과학 세트를 30분 안에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논술을 풀듯이 문제를 침착하게 끊어 읽으면서,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밀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푼 뒤에는 5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준비한 답변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추가 질문 전의 기본 답변은 4~5분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일반전형의 경우 면접관은 99% 확률로 해당 학과의 교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배경화면을 교수님 사진으로 바꾸고 그 사진과 눈을 맞추며 답변하는 연습을 했고, 운이 좋게도 실제로 그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오셔서 긴장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끝나면 이 책을 펴고, 자신의 답안과 해설을 비교하며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만 담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해설을 구성했으니,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 없이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오르비 아이디 'SNUCOF20'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독자님의 입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인문학 오전 - 난이도 하

문제 1: 제시문 (가)는 키플링의 소설을 화제로 하여 예술작품 또는 고전을 대할 때는 작가의 창작 당시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제시문 (나)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변질되어 공연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관객의 만족을 위해 고전의 창작 맥락이 무시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두 제시문이 예술작품 또는 고전을 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창작 당시의 맥락 존중' 이라 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나)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이 본래 창작 맥락과는 달리 변질되어 공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연극 연출가에게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에 얽매이지 말고, 고전의 창작 당시 맥락에 집중하여 원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언에 대한 의견을 독서 또는 예술 감상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라는 점에서 서울대 면접의 핵심인 '논리적 응용력'이 드러난다. 이 문제에서는 주제에 맞게 고전 감상 경험을 떠올리면 좋다. 해당 고전을 감상할 때 얼마나 원작의 맥락이 보존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지, 변질되었다면 왜 변질되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처음 제시한 조언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자평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 방식이다.